현불논단



법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前 이사장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뉴미디어 시대 진입 가짜뉴스 범람
방역백신 없는 역병처럼 사회 난타
난무하는 거짓 정보에 대중들 현혹

미래사회 행복 진정으로 원한다면
각계각층서 청정한 양심을 일으켜
정서적 평화 향유하는 방안 강구를
탐욕 줄여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탐욕은 온갖 거짓을 만들고
거짓의 가면은 불행을 유혹한다.
유혹에 탐닉함도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선정으로 마음을 살펴 탐욕의 탈을 벗어버리면
밝은 지혜로 거짓의 작란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거짓됨이 없으니 깨끗하다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 없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일으킬 까닭이 없으니 사람은 본래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칙이다.

옛말에 '도(道)는 자연이다' 라고 하였다. 즉 이도는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며 어떠한 조작도 탐착도 없으므로 일체의 시비와 시기질투가 본래 없는 삶의 현상이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도법(道法) 자연(自然)이라는 이치 그대로 생성진화하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오직 그 자연 속에 더불어 사는 인간은 그 순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온갖 병폐를 스스로 만들어 그 거역의 과보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염원은 행복한 삶의 추구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복을 위한 실행이다. 인간은 그 현실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인간은 원시사회로부터 농경사회를 거쳐 오며 산업사회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무한히 개혁하여 왔다. 현재도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행복은 돈과 권력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속고 속이며 시시각각 증가하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며 각종 언론 매체가 팽배하고 유튜브나 개인 방송까지 범람하면서 가짜뉴스는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방역백신이 없는 역병처럼 사회를 난타하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가짜 상품 기업투자 등 이익 추구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신성해야할 종교계나 교육 문화예술 내지는 정치판 까지도 가짜뉴스를 조작 유포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현상을 그냥 보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현실 뉴스를 접하고 보면 이를 선도하고 있는 집단은 단연 국민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고 있는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의 뉴스를 외면하고 유언비어나 유튜브 또는 난무하는 광고에 눈과 귀를 팔고 그냥 멍청하게 유혹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생활화 되어있는 스마트폰의 각종 정보의 난무는 제어장치가 상실된 범람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미래사회의 행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치 · 사회 · 교육 · 경제 · 종교 ·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인간 본연의 청정한 양심을 일으켜 국민의 정서적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돈과 권력은 행복에 필수요건은 될 수 있으나 행복의 충분요건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적은 소득일지라도 만족할 줄 알고 서로 나누며 돕고 더불어 진실한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소욕지족(少欲知足)으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는 탐욕을 줄여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社 說

'108원력문' 불교 포교 지침되길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은 108원력문 초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대중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상월결사 정신을 담은 108원력문은 참회 일변도였던 기존 108참회문과는 그 결이 다르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상월결사의 대의명제 아래 전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신을 담았기 때문이다.

108원력문의 방향은 총 5가지로 △삼귀의 △사무량심 △삼법인 △사섭법 △사성제를 근간으로 △팔정도 △육바라밀 △십선업 등의 교리와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 사부대중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108원력문은 삼귀의로 시작된다. 팔정도 부분에선 '바른 생각으로 정당한 도리에 맞게 사유하겠습니다. 바른 언어로 진실하고 모두가 유익한 말만 하겠습니다' 등의 실천적 강령이 담겼다. 부다가야에서 이뤄진 21세기 전도선언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108원력문' 의 최종 완성본은 3월 23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공개된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동력을 모으기 위한 실천강령으로서 '108원력문' 은 손색이 없다.

회주 자승 스님도 "원력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동안 108참회를 하면서 밭을 충분히 갈아놨기에 앞으로 스님들은 남은 수행기간을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108원력문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통해 세워진 원력은 실천 동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그것은 우리 사부대중의 화두다.

동국대 혁신적 상상력으로 새도약을

3월 15일 종립학교인 동국대 제 20대 총장으로 윤재웅 교수가 취임했다. 취임식서 밝힌 그의 첫 일성은 '혁신적 상상력' 을 통한 학교의 변화 발전이었다. '혁신' 과 '상상' 이라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보통 조직의 CEO가 바뀔 때마다 밝히는 낯익은 키워드이다. 얼핏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부조화 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윤 총장 취임사를 들어보니 다시 고개가 끄덕여 졌다. 사회 · 경제 환경은 급변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하기에 이제 부터는 우리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내부서 부터 먼저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 패러다임 파괴인데, 그것이 바로 '혁신적 상상력' 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말을 빌리면 창의적 아이디어는 경직되고 권위적인 문화에서 나오지 않으며, 창의와 도전 정신에 기반을 둔 탈 권위의 부드러움은 조직에 새 생명력을 불어 넣어 대학을 보다 기품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동국대를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즉 다시 말하면 유연한 조직문화에서 혁신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학교 조직을 생각할 때면 딱딱하거나 경직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재원 마련과 학생수 감소, 취업률 저하 등의 문제로 위기에 봉착돼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탈출구가 쉽게 안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윤 총장의 '혁신력 상상력' 공약은 신선하게 들린다. 특히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 을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통해 발현시킬 것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의 청사진대로 자신의 모교를 획기적 변화로 이끌며 새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명장이 되길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빛을 찾아서

봄빛이 그립다. 창밖은 햇살로 눈부시지만 바람은 창문을 부숴버릴 듯 으르렁거린다. 그 매서운 소리에 나도 모르게 책상 위의 널브러진 책들로 시선을 돌린다. 이 책, 저 책 펼쳐보아도 눈길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 책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그때 세상의 눈길을 피해 조용히 숨어사는 은둔자처럼 책 한 권이 책장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꺼내 들었다. 중국 한시(漢詩)들의 모음집인데, "왜 종일토록 봄을 찾아 산속을 헤맸을까?"라는 오도시(悟道詩)에 마음이 머물렀다.

종일토록 봄 찾아 헤맸으나 봄은 보지 못했네(盡日尋春不見春)/ 짚신 헤지도록 산봉우리 구름까지 뒤졌건만(芒鞋踏破嶺頭雲壟)/ 집에 돌아와 미소 지으며 매화 향을 맡으니(還來笑拈梅花嗅)/ 봄은 이미 가지 끝에 잔뜩 담겨 있었네(春在枝頭已十分)

남송 시대 나대경의 〈학림옥로(鶴林玉露)〉에 나



그림 · 최주현

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비구니의 오도송이다. 그는 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온 산하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니 봄이 바로 집안 뜰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 이미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던 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었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소중한 사람이나, 행복은 늘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멀리서 찾으려 한다. 진리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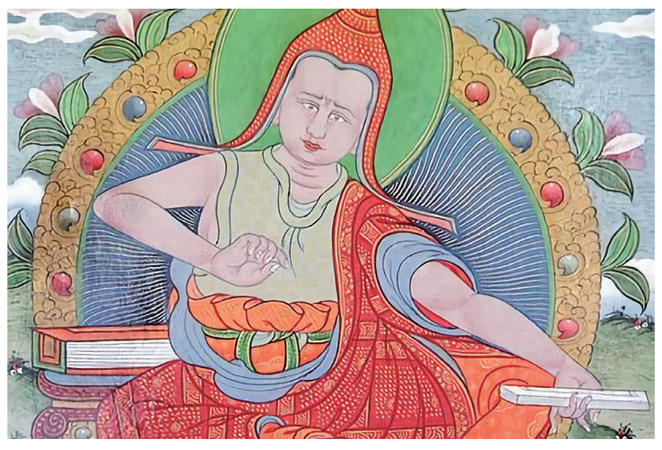
비구니도 부처를 찾아 헤맸다. 그는 진리의 세존봉을 오르기 위하여 53선지식을 찾아 헤맸던 선재동자처럼 칼산을 오르기도 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얇은 베일 너머로 부처가 어른거릴 뿐, 그 거추장스러운 베일은 도무지 벗겨지지 않았다. 그만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세존봉에서 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눈앞에서 너울거리던 베일이 벗겨지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다.

세상은 온통 봄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설산에서 흘러내린 물소리도 봄이요, 들판을 가득 메운 야생화도 봄이요, 꽃에 내려앉은 나비도 봄이요, 풀도 봄이요, 흙도 봄이었다. 일체가 봄이다. 봄이란 말 대신에 부처라 해도 마찬가지다. 일체가 부처인데 새삼스럽게 어디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다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이미 불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봄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豫修齋儀範 예수재의범 編纂 海沙 운주사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